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30일(수)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최병훈 ☎440-6749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서오십시오, 여기부터 인천직할시입니다!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전시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7월 1일 송학동 인천시민愛집(옛 시장관사)에서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전시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40년 전 인천직할시 승격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프롤로그’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는 과정과 직할시의 의미에 대하여 되짚어보고, ‘그 날, 1981년 7월 1일’은 인천직할시로 승격된 1981년 7월 1일, 그 날의 행사를 소개하며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다.

‘안녕히가세요. 여기까지 경기도 인천시였습니다’는 직할시 승격 이전 경기도 인천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반대쪽 공간인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는 직할시 승격 이후 인천직할시가 시민들에게 점차 스며드는 과정을 살펴본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천시민愛집 본연의 모습과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그날의 모습을 조화롭게 제공한다. 전시회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40년 전 축제와도 같았던 그 날의 인천을 즐기고, 인천직할시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032-440-6749)

## <붙임> 관련 사진

	<p>「붙임 1」 〈어서오십시오, 인천직할시입니다〉 포스터</p>
	<p>「붙임 2」 인천 심볼마크 동판 인천시의 휘장이 새겨진 동판으로 시청(관동) 외벽에 걸려있던 것이다. 이 휘장은 1965년 윤갑로 시장 당시에 만들어 1995년 인천광역시 승격 직후까지 사용했다. 외곽의 타원은 항구도시, 톱니바퀴는 공업도시, 무궁화는 인천의 발전을 상징하며 중앙의 원형과 오각형은 인천의 자음 ‘ㅇ’과 ‘ㄷ’을 뜻한다.</p>